

이 보도자료는 2024. 7. 2.(화) 14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검찰청

대변인실
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보도자료

2024. 7. 2.(화)

자료문의 : 마약·조직범죄부
전화번호 : 02-3480-2290
주책임자 : 마약과장 이태순

마약범죄 단속 강화 위해 검찰-서울시 손잡다

- 서울시 CCTV 안전센터 현장 방문, 진화하는 마약범죄 협력대응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대검찰청은 오늘(7.2.) 「서울시 CCTV 안전센터」와 효과적인 마약범죄 단속 및 예방을 위해 서울시 소속 각 자치구별 CCTV 영상정보를 마약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.
※ 서울시 CCTV 안전센터는 서울시 소속 각 자치구별 통합관제센터의 CCTV 실시간 영상정보를 모니터링하고, 사건·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영상정보 중계
- 이날 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장(검사장 노만석)과 서울시 디지털 도시국장(국장 박진영)은 검찰·서울시 간 마약범죄 관련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향후 수사기법 및 노하우 공유 등 마약범죄 억제에 위해 양 기관의 수사·행정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.
- 다크웹·SNS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마약유통 수법이 첨단화되는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해,
 - 대검찰청은 『AI 기술』과 연동된 다중영상 기반 마약사범 추적·검거 시스템을 '26년까지 수사에 도입하는 등 마약수사기법을 첨단화하고 있으며,
 - 서울시는 사건·사고의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『빅데이터』 기반으로 범죄 발생지수 등 9개 지표를 분석하는 '지능형 CCTV 확대'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검찰·서울시 협업을 통해 총 17만대의 CCTV를 마약유통 범죄 실시간 감시·단속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마약 유통범죄 차단효과를 극대화 하고, 시민생활 안전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앞으로도 검찰은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

추진 배경

- **(마약류 유통범죄 수법의 변화)** 인터넷·SNS·가상화폐 등의 보급으로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·30대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, 지속 증가

【최근 20·30대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】

연도	'19	'20	'21	'22	'23
구분(명)					
20·30대 사범	7,647	9,009	9,173	10,507	15,051
비율(%)	47.6%	49.9%	56.8%	57.2%	54.6%

- **(범행수법의 변화)**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 (우편함·실외기 등 주택가 곳곳에 숨겨둔 마약류를 수거해가도록 하는 방식) 으로 변화되는 추세임
 - **(유통조직 운영방식)** 다크웹·텔레그램 등 보안 SNS·가상자산의 익명성 이용, 총책, 관리책, 배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 운영
- **(수사단서 조기 포착 통한 마약류 유통 신속 차단 필요)** 주거밀집 지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마약 운반책의 특징적 행동 패턴 등 범죄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·차단 조치 필요
 - **(서울시 CCTV를 마약수사에 활용 필요)** 24시간 상시 가동중인 서울시내 17만 대의 CCTV를 마약 수사에 활용, 마약범죄 조기 차단



【마약운반책이 주택가로 이동하여 벤치 아래에 마약을 숨기는 장면(CCTV)】

2

서울시 CCTV 안전센터 운영 현황

- **(광역형 CCTV 통합컨트롤타워)**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·재산을 보호하고,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25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, 119상황실 등에 공공안전(CCTV 영상정보) 분야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 구축한 『서울시 CCTV 안전센터』를 설립·운영 중임
 - 기관별 분산 운영 중인 CCTV 영상정보를 시 중심으로 통합연계, 공동활용
 - 시·자치구 CCTV 영상정보를 112·119 등에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

【 서울시 CCTV 설치 현황 (23. 12. 31. 기준) 】

구분	총계	범죄예방 및 수사				시설안전·화재예방	교통단속	교통정보수집·분석	기타 다른법령
		방법	어린이 보호구역	도시공원·놀이터	쓰레기 무단투기				
계	176,371	90,006	8,418	10,664	1,458	54,346	9,285	1,598	596
본청	3,958	209	0	0	0	2,237	390	1,122	0
사업소	10,954	830	0	1,601	25	8,498	0	0	0
투출 기관	61,944	20,220	28	476	347	39,773	642	458	0
자치구	99,515	68,747	8,390	8,587	1,086	3,838	8,253	18	596

- **(실시간 모니터링)** 24시간 상시 운영되며, CCTV 안전센터를 통하여 각종 사건·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
 - '23년도 한해 월 평균 경찰에 173,704건, 소방에 18,207건, 법무부·국무부·재난상황실 등에 43,917건의 영상 제공, 특히 '마약' 관련 특별 CCTV 관제 추진하여 영상 145건을 제공 및 처리, 마약사범 16명 검거 기여

3

주요 협의 사항

- **(SNS·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범죄 적극 대응)** 인터넷·SNS 마약 유통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밀매범죄에 적극 대응, 마약류 유통범죄 실시간 모니터링, 범죄 의심 영상 신속 제공 및 처리

○ **(CCTV 관제 요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)** 검찰 마약수사관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CCTV 관제 요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실시간 감시방법, 실제 마약범죄 수사사례, 주요 마약류 은닉 장소 등 교육 실시

※ '23. 5. 31. 및 '24. 6. 27. 관련 교육 실시하였으며, 향후 지속적으로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교육 강화할 예정임

○ **(마약 수사기법 첨단화 사업 협조)** 검찰은 현재 '다중 영상 기반 마약 사범 추적 및 검거를 위한 『AI 기술』 개발'*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'26년까지 마약수사기법을 첨단화·전문화 할 예정

* 마약사범 식별 자료(인상착의, 복장, 이용차량 등) 입력 → AI가 추적대상을 인식, 이동방향 분석, 재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이동 경로를 릴레이 방식으로 추출

- 또한, 서울시는 사건·사고의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『빅데이터』 기반으로 범죄 발생지수 등 9개 지표를 분석하는 '지능형 CCTV 확대를 추진'하고 있어, 추후 사업 완료시까지 긴밀히 협업할 예정

4

기대 효과

○ **(서울시 마약 거래 위축 및 감소)** 17만 대의 CCTV를 상시 가동하여 마약 유통범죄를 실시간 감시·단속하고, 『AI 기술』 과 『빅데이터』 를 통해 마약범죄 수사기법 첨단화하여 마약 유통범죄 차단 효과 극대화 기대

○ **(시민 안전 보장)** 주거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불법거래를 철저히 감시·차단하여 시민들의 안전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

5

향후 계획

○ 향후에도 검찰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여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